

아사히보 - 카메룬 원면으로

독특한 이미지의 면사 뽑아

일본의 오오사까 남부의 센난(泉南)시에 있는 아사히(旭)방적은 오오사까의 섬유산지는 물론 히로시마(廣島), 오까야마(岡山), 시즈오까(静岡), 와까야마(和歌山)에 있는 각 섬유 산지로부터 “카메룬면(Cameroun 綿)” 방적사에 대한 주문량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3, 4년간 “짐바브웨(Zimbabwe)”에서 생산된 원면을 저렴하게 도입하여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오고 있던 원면과는 다른 특성을 잘 살려 “특화원면(特化原綿)”으로서 색다른 차별화 면사를 뽑아 레이디즈·캐주얼 분야의 섬유산지에 공급하여 붐을 이루었었는데, 아프리카의 중서부 대서양변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만 나라 카메룬면도 값이 싸면서도 섬유장이 길고 섬유가 가늘어 제품을 만들면 태가 부드러운 장점을 특히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이 원면으로 진즈·캐주얼 소재로서 오까야마, 히로시마, 오오사까 산지에는 슬러브(slub)장식사로 공급하고 있으며, 시즈오까산지에는 정상적인 스트레이트(straight)사로, 와까야마 산지에는 니트용 면사로 공급하여 호평을 받고 있어, 짐바브웨면이 일으킨 붐의 다음을 이어가는 소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방적회사들이 활기를 잃고 있는데도, 아사히 방적을 비롯하여 태번수 면사를 주로 뽑고 있는 중소 방적들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사히 방적은 OE 정방기 약 1,900 드럼과 링 정방기 약 5,800추를 보유하고 있으며, 3 20수의 굵은 면사가 중심이 되어 있으나 일부 30수 면사도 생산하고 있으며, 월 생산량은 약 3,500콘(梱)이다. 한때는 OE사가 전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한 때도 있었으나 수입 섬유제품이 늘어나면서 양판점으로 공급되던 중저가 섬유제품의 수요가 줄어들어 지금은 반대로 OE사보다는 링방직사의 생산량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레이디즈·캐주얼용 각종 슬러브장식사나 원면에서부터 독특한 특성을 찾아내어 차별화된 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상품의 시방(試紡)이나 특별 주문상품이 많아져서 월간 생산품종은 원면, 각종 소재나 각기 다른 변수에 의한 종류를 모두 합치면 200품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제직이나 편성, 염색, 어패럴 등의 많은 고객들과의 접촉으로 얻은 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화섬 메이커와도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현재 새로운 독특한 나일론 방직사를 개발중이다.

아사히 방직은 원사 메이커로서 앞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및 개발 능력, 영업력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항상 경쟁력 향상을 중요시하며, 장차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실이나 천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